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보건 단체의 홍보활동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세미나 발표 (제 2회)

2. 매체를 이용한 교육

매스컴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기타 각종 정기간행물,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



이 관 영

여러가지 유인물 등을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방법은 단시간 내에,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전파하는데에 사용된다. 이것은 주로 기본지식보다는 이미 알고있는 사항을 일깨워주거나 보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매체의 이용은, 교육대상을 선별하여 적절한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보건지식 습득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그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도 없어 주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3. 조직(단체)활동에 의한 교육

일정 사회단체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강연회라든가, 부녀회 등의 집단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일정한 인원이 서로 접촉하면서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고 토의하여 결론을 얻게되는 것으로 관습이나 태도의 변경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상의 대인접촉, 매스컴활용, 단체활동의 세가지 방법은 각자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피교육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 비중이 각기 다르다.

우리는 교육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피

교육자의 배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절충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며 이 조직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에는 조직(단체)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III. 조직(단체)의 활동을 위한 전제

한 단체가 조직·결성되는 것은 단순히 '모인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모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입각하여 보건단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들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목적, 목표가 뚜렷하고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 사회보건단체가 보건교육과 제반 사업을 통하여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려면 그 목표가 국민건강·보건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영양관리와 개선·질병의 퇴치와 감염예방·모자보건사업·학교보건사업·복지후생 등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 활동을 위한 다음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 보건에 관계되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 피교육자의 배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이것은 한 사회단체가 목표하는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예기인데,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즉 기생충관리·건강관리·모자보건·환경위생·식품영양관리 등의 활동이 그들의 역할로써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조직의 전반적인 기능이 일반국민과의 접촉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어진 역할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단순히 형식적인 언어나 관념으로 표현되는 것이기만 해서는 안되며 실제의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때에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조직(단체)의 하부조직(지방조직)이 필요하다.

국민보건이라는 것은 일정지역, 일정집단에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작은 조직으로 전국을 망라하기에는 보건교육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전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며 보건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하부, 즉, 지부조직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지부조직은 단순한 사업수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 조직의 역할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

그 특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3. 일단, 목표나 활동조건들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실제 활동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게 된다.

가. 충분한 인력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보건단체는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우선은 그들의 사업내용을 홍보·계몽하고 나아가서 국민보건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고, 목표로 하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들이 주어져 보건사업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나. 확고한 조직력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체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는 대상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 사업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부(지방)조직이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하부조직이 지역적 특색을 중시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결코 독립적인 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동일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체는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조직력을 확대시켜 나갈 때에야 비로소 정확한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사회보건단체의 궁극적인 전 국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 보건에 관계되는 사업내용을 가져야 한다.

건강검사, 기생충검사, 질병퇴치사업, 공중보건사업, 환경위생, 식품영양관리 등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 내용으로 해야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내용으로 홍보계몽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동안 얼마만큼의 계몽교육사업을 할 것이며,

● 지부조직은 단순한 사업수행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

어떤 검사, 혹은 어떤 치료업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필요하다.

IV. 보건사회부 산하단체의 홍보 활동

현재 보사부 산하의 각 단체들은 보건사회부의 국민보건에 기여한다는 대 이념사업을 실천한다는 입장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제반 조건을 기초로 하여 각 단체의 목적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1. 大韓家族計劃協會

인구억제정책에 부응하여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홍보·계몽하고 모자보건사업을 통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1961. 4월 창립되었다.

가협에서는 그들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홍보계몽하기 위하여 홍보전담부서인 홍보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정지역이나 가가호호를 방문, 가족계획을 홍보·계몽할 수 있는 Mobile Team을 운영하고 있다.

가협의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회 시·도지부 및 부속의원을 설치운영하면서 가족계획상담과 함께 성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료은행을 설치·운영하면서 각 매스컴이나 유인물 제작시 필요한 자료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구문제 고정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그외에도 월간지 '가정의 벗'을 제작·배포하여 국민들의 성에 대한 기초지식과 가족계획에 대한 상식 전달에 기여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계몽활동은 국민의식수준의 변화와 함께 인구증가율을 저하시키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즉, 60년대초 3.0%이던 인구증가율이 70년대초 2.0%, 80년대초 1.57%로 저하되었으며, '자녀는 많을 수록 좋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은 70년대의 '둘 낳기 운동'이나 현재의 '하나 낳기 운동'을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가협에서는 가족계획의 주 대상인 부녀회원을 모집 홍보계몽활동을 전개하고 각 지역에 인구의 변동추이를 알리는 시계탑을 설치해 국민들로 하여금 인구문제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계속)

〈필자=건협 사무총장〉

